

日 총리후보들 “집단적 자위권 허용해야”

평화헌법 근거 ‘보유하나 행사못한다’ 재해석 시도

일본 차기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3인방이 일제히 자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유력한 후보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속에도, 국민 속에도 개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와, 헌법해석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나기 사타카즈(谷垣禎一) 재무상도 같은 날 “헌법 해석 속에서, 오랜 기간 (용인되지 않는다는) 정부 답변의 축적에는 무게가 있다. 개헌을 폭넓게 논의하고 국민의 합의를 얻어가며 진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

면서도 “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을 지지하는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일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논의가 9월 자민당 총재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아베 장관이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에 긍정적인 반면 다나기 재무상과 아소 외상은 해석 변경에는 신중, 개헌시의 과제를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집단적 자위권=긴밀한 유대를 가진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의 제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왔다.

카스트로 정권이 양... 배바진 미국

‘쿠바 자유플랜’ 시동건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1일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건강문제로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일시 이양한 것과 관련,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쿠바의 민주적 정권이 양에 대한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토니 스톨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라울이 쿠바 국민에게 해온 행동은 그의 형이 해온 것과 거의 흡사했다”면서 “라울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접촉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은 일관되게 쿠바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해 왔다”면서 “미국은 쿠바의 민주적 전환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쿠바에 민주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카스트로 공산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쿠바인들이 지난 47년간의 장기 통치에 압증을 내고 있고 민주주의를 갈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쿠바 국민들이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카스트로가 언제 하야할 것인지는 누구도 모르며 오히려 시련이 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카스트로의 일시적 권력양에 대한 논쟁을 자제했다. 그간 미국 정부는 카스트로와 함께 시작된 쿠바 공산주의 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피력해왔다.

한편 카스트로 압정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치려 하는 쿠바 망명인사들을 이날 마이애미의 리틀 아바나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춤을 추고 환호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독도 주변해역서 방사능 조사하겠다”

日, 한국에 이례적 사전통보

일본이 곧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안, 독도 주변 해역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알려줌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해양 조사가 지난 4월 일본의 수로조사, 7월 우리나라 해류조사에 이어 다시 양국 간 갈등과 충돌의 불씨가 될 지 주목된다.

2일 정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우리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예정된 동해 방사능 조사를 곧 진행할 테니 협조해달라’는 뜻을 전달해왔다.

일본의 조사 지역 1~2곳은 우리나라 EEZ(울릉도-오기 중간선) 안, 독도 북동쪽 해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특이한 움직임이 지난 7월 우리의 독도 주변 해류 조사에 대한 ‘대응조사’ 성격에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고조된 양국 간 긴장 상황을 감안해 되도록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는 화해 제스처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대북정책 변화없어”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강화 여부와 관련,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할 것이라 보도가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의 정책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여행금지도 없다. 그런 보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북 여행금지 등 제재강화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확인해줬다고 말했으며, 이날

“그걸 알아봤는데 대북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대북 제재와 관련 “우리는 일부 방어조치를 취했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술 유출과 그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물품 반입을 막는 것과 관련해서는 늘 가능한 추가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 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상하이 실내스키장 스키인파

중국남부에도 살인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의 실내스키장엔 매일 2천여명의 중국인과 관광객들이 인공눈 슬로프에서 스키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美 살인적 폭염 ‘비상’사태

뉴욕 섭씨 37.8도...워싱턴·보스턴 초폭염주의보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중서부를 강타했던 불볕더위가 북동부 지역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뉴욕과 워싱턴, 보스턴 등지에 화씨 100도(섭씨 37.8도) 이상의 불볕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1일(이하 현지시간) 지금과 같은 폭염이 계속될 경우 지난 1933년의 최고 기록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다.

기상학자인 낸시 프구에로아는 “지금도 호흡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청소년과 노인층에게는 매우 견디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서늘한 곳에서 활동하는 등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북동부 지역은 앞으로 최소한 1주일 이상 잠자리에 들기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미 중서부 지역에서 발달한 고온다습한 공기가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지로 이동하면서 이날 오후부터 이 지역도 화씨 10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시작됐다.

워싱턴 일원의 가마솥 더위는 3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체감온도는 무려 110~120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날 오후 경보령에 이어 이날 초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뉴욕워싱턴·연합뉴스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겨울철 보온, 난방비 절감! 지금 시공하십시오!!**

- 비가 새서 걱정하십니까?
- 여름에 더워서 짜증 납니까?
- 겨울에 춥습니까?
- 외관상 흉하십니까?
- 소음이 심하십니까?

한번 사용으로 건물 수명을 늘기 위한 영구적 방수 방벽 50% 절감

■ 비정: 기밀성, 수직이동, 합성수지, 슬라브 옥상, 아베드 옥상, 공장지붕, 농장지붕 등
■ 내장: 도장, 측사, 개사, 방충창, 저온창고, 체육관 건물벽, 저층을 실내 인테리어 가능

※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주택개발 | TEL (062) 262-0606 / 262-0450

7.9월 공무원 **부여 경찰직** **공인 중개사**

·서울시: 10월1일 932명 공채대비
·선관위: 9월24일 100명 공채대비
정규이론반 문제풀이반

·일반경찰,해양경찰, 101단경찰반
·정규이론반 ·문제풀이반
·경찰시험전문 강의로 100% 합격목표

·9월 최종정리반(핵심요약+문제풀이)
·9월 1개월간 전과목 정리
·10월 개별학습의 극대화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광주동부서위
www.Chonnamgosi.co.kr ☎ (062)222-5105

곽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조용교사, 중등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원로강사, 전문강사, 영남교사, 임용시험은 구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유형에 맞춰 최상의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최고의 최고 강사들이 전수교육과 담당하여 합니다. 편입생 교육과도 전문 강사, 이공계 학생이 아니라 수년간 수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 입증된 최고 강사진입니다. 그리고, 합격자들은 이공계로 진출합니다. “역시, 교원임용 시험은 교육자로서 최고야!”

문제풀이반 개강 9월 2일 (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곽내영 선행
- 수학/임대성 교수
- 생물/김치영 교수
- 체육/김영호/김용호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행
- 국어/최병태 교수
- 과학교육론/정영민 교수
-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초등교육과정/유재현 선행
- 국어교육론/마은용 교수
- 물리/정영민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영어/송국 교수
- 수학/이영철 교수
- 인문사회/김형수 교수
- 음악/박성선 교수

전국 최강의 강사진만을 모셨습니다.

수강문의: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현대직업전문학교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최고 교수진, 말찬 교육, 최상의 시설]

유료과정	교육내용	개강
사무지동화 신입기사 실기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1차 8월 10일 : 오전/오후/이간 2차 8월 22일 : 오전/오후/이간
재직자과정	교육내용	개강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실학 개론 1차 중심반	7월22일 주말반
주제관리사	회계, 실무, 법규	8월5일 주말반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8월개강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8월개강
사무지동화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상당후결정

■ 기타사항
·고용보험가입 지정인, 각 과정별 25명 (선착순 정원제 모집)
·수료 후 100~80% 환급
·수강절차
·후원 상담 ▶ 후원수강신청서작성 ▶ 후원기관에 제출 ▶ 수강

■ 도청/외선번호 : 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555, 385, 777
■ 전라남도 : 3, 11, 27, 35, 55, 111, 118
■ 서울/수도권 : 2, 6, 11, 25, 30, 118, 222, 518, 666

공무원 여름방학 2차개강

-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관위 대비)
- 경찰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8월 7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위 222-4560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 매일 40분향 모의시험 문제풀이 ◀◀

8월 1일 개강

오전반 9:20까지 입실하여 40분간 모의시험을 치른 후 10:10부터 핵심요약정리와 모의시험지 해설강의를 통해 최종 합격점검을 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야간반 18:30까지 입실하여 40분간 모의시험 치른 후 19:10부터 문제풀이 해설강좌 진행

"원서접수 받습니다." **광주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 ☎ 227-8003
도청 앞 선관위 27 / 지하실 도청역 8번출구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 : 전남여고건너편 (김재규경찰학원 내)
☎ 224-4560, 236-2467

hanbitgosi.co.kr

"10월 1일 서울시" "9월 24일 선관위" 시험대비 **중급 문제풀이반** 개강

1차: 8월 1일 마감
2차: 9월 1일 마감

전남대 2층 농진지도사 개강 / 2007년 농업직 개강
합격시 8월 25일 / 취업/취학비 9월 1일

필수합격 "양승훈"선생님 농업직 4명 ▶ 농업연구사, 농촌지도사, 7급공무원, 9급공무원합격

한빛공무원학원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 234-0234